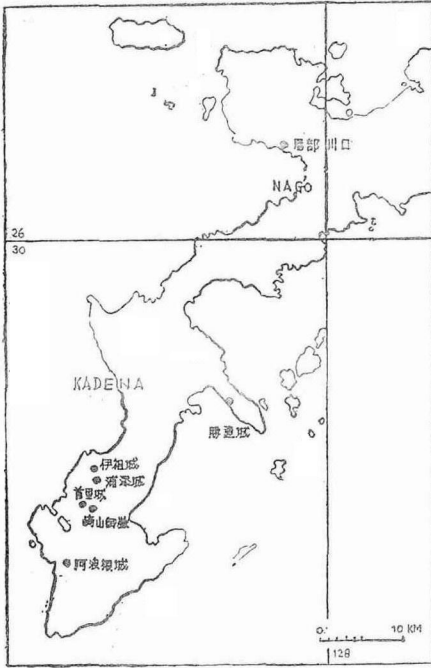


에 圓覺寺東西의 御照堂을, 一六七〇年에 首里城을 瓦葺하는데 이 明式瓦를 使用한 것이 알려졌으며 그 후로는 이것도 次次 赤色の 島瓦로 되어 가는데 「乾隆三年」在銘이 나오고 있어서 第三期의 據點을 알리고 있다.

大川氏는 以上 三期의 古瓦를 또 分類하고 있는데 高麗系古瓦로서 가장 오랜 것으로 볼 것은 鏡瓦로서 그가 말하는 浦添城第一類를 치는데 灰褐色으로 잘 구운 것이며 文樣面은 徑約 一五·五cm, 內區에 花瓣九個를 配하고 中央에는 구멍이 있는 乳房狀의 蓮子一個가 있고 外區의 內緣에는 珠文外緣에 半圓形의 管文을 들렸으며 또 文樣面에 가까운 筒部(男瓦)上緣에는 外緣에 적은 管文보다 한 들레 큰 管文을 一列로 押印하고 있다(圖一). 宇瓦의 文樣面은 左右約 二六cm 上下約 二一cm의 幅이 넓고 中央에 鏡瓦와 같은 花瓣 八個를 配하고 中房은 乳房狀의 큰 蓮子一個를 配하고 있다. 그리고 中央의 花文左右에는 아래로 向한 開花의 側面을 優雅한 線으로 나타내고 그 兩端에는 역시 細麗한 曲線의 닝플이 붙어 있어 그 先端에 꽃봉우리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文樣面에 가까운 平平한(女瓦)部分의 上緣에는 半圓形管文이 一列로 押印되어 있다. 또 이 宇瓦의 넓은 部分의 裏面(下部)에 例의 「癸酉」銘이



琉球古瓦出土地

적어 있는 것이다(圖二). 男瓦表面에는 羽狀押型文이 적혀 있고 裏面에는 布目이 보이며(圖三) 女瓦에는 「癸酉年高麗瓦匠造」의 銘文이 있는데 銘文은 押型의 一部로 되고 있으며 羽狀押型의 거의 中央部에 있는 것으로 짐작되는데 押型文의 一部는 羽狀으로 되지 않은 곳도 있다. 그리고 銘文은 左字로 되어 있다(圖四). 以上 가장 오래된 基本型만을 여기서 나타냈는데 後期的인 이 系統의 古瓦는 이와 같은 各文樣을 基本삼아서 變形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 琉球가 入朝한 것은 高麗史 辛禑王十四年과 恭讓王二年에 察度王이 遣使한 記錄이 처음이며 이후 李朝實錄에는 頻繁히 傳해지고 있지마는 그 이전이라도 琉球가 高麗, 日本, 中國 사이에 끼어서 貿易에 한 구실을 해온 것은 李朝期와 다름이 없었을 것이다. 民間貿易에는 文物的 交流가 隨伴되고 技術人의 往來도 있었을 것인데 高麗瓦匠이 멀리 琉球에 가서 그 技術을 傳하고, 그 證據로서 銘瓦를 남긴 것은 매우 興味있고 자랑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從來 古瓦의 研究는 三國, 新羅統一期에 集中되고 高麗期의 古瓦에 對하여서는 이렇다할 系統의인 研究가 없는 모양인데 將次 이와 같은 研究를 위해서 絶海の 孤島에 남겨진 이 一聯의 古瓦의 文樣은 重要한 資料를 提示하고 있는 것이다. 察度王 以前에 琉球가 文化의 歴史를 시작한 것은 英祖王을 넘지 못함으로 癸酉年을 이와 같이 잡은 것은 妥當하다고 보며 文樣의 系統上으로도 그 手法을 傳한 것으로 보겠다.

瑞山 龍賢里出土 百濟金銅如來立像

李 殷 昌

一、序 言

一九六八年 四月에 瑞山郡 雲山面 龍賢里 普願寺址에서 金銅如來立像

이出土되어 瑞山郡教育廳을 經由하여 忠淸南道 教育委員會에 報告되는 한편 佛像이 移送되어 왔다. 道教育委員會 文化係로부터 鑑定依頼와 同時에 現場調査 附託이 있어 佛像과 出土現場인 遺跡地를 調査하였다. 金銅如來立像은 既往에 百濟石像이 發見調査된 뒤를 이어 出土된 百濟金銅像인데 높았고 또 그 佛像의 造成樣式이 韓·中·日의 文化交流 史上의 證據가 됨에 다시 높았으며 그 鑄造手法이 優秀한 作品임에 驚嘆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出土現場인 遺跡地에서 時代가 떨어져 石造浮屠片이 殘存하고 있어서 注目되는 바이다.

二、遺跡概況

一九六八年 五月二十二日에 法印國師寶乘塔의 盜壞 現場과 金銅如來立像의 出土 遺跡地를 調査하였다.

金銅如來立像이 出土된 地點은 高麗 大伽藍이라 일러오는 普願寺址中 (心部에서 南쪽 約二百m 되는 山麓 崖上 밭田)이다. (圖一·出土地附近圖 ①·② 參照) 다시 말하면 西로 높은 山이 솟고 그 山麓에 若干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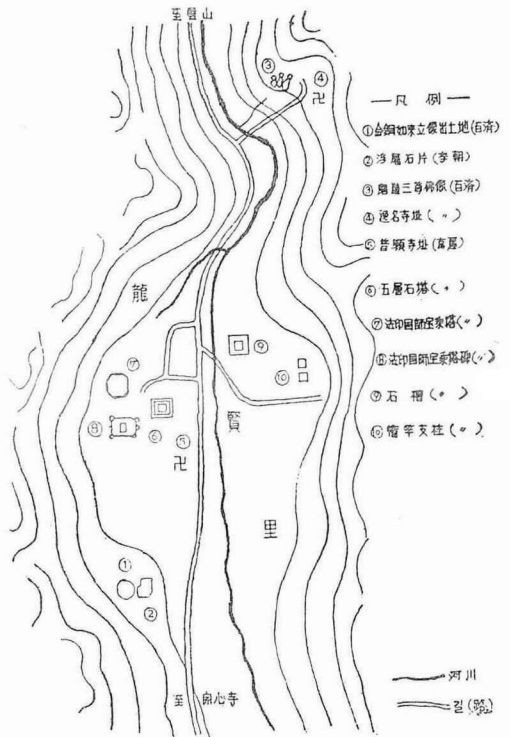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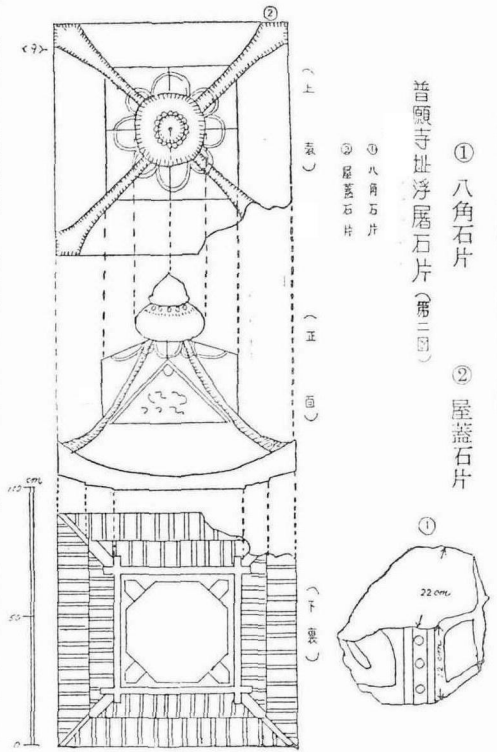
圖 1. 金銅如來立像出土地附近圖

傾斜를 이룬 밭(田)인 바 그 아래로는 낭떨어지 밑에 河川이 흐르고 東으로는 河川을 건너서 다시 平地를 거쳐 山峰을 對하고 있으며 東北으로는 平坦한 盆地의 一帶에 普願寺址①가 展開되고 있다. 그리고 이 盆地 밖으로 병목같은 좁은 溪谷을 이루었는 바 이 곳 東北쪽 山腹 岩面에 百濟磨崖三尊佛像이 있다.

金銅如來立像의 出土經緯는 瑞山에서 居住하는 張世煥이 龍賢里寺址의 部落) 居住 張有聲의 所有인 밭에 있는 浮屠石片(圖二·普願寺址 浮屠石片 參照)을 搬出하기 爲하여 人夫로 하여금 그 掘出作業을 하는 途中에 發見되었다. 곧 浮屠屋蓋石片(圖二·普願寺址 浮屠石片 參照)을 들어내고 다음에 地基石을 들어내려고 땅을 파다가 地基石 가까이 땅속에서 偶然히 發見되었다. 이 金銅如來立像이 埋沒된 深度와 그 位置와 또 그 狀態와 그리고 地下狀況에 對하여는 알 수 없다.

金銅如來立像이 出土된 地點인 밭(田)의 地上에는 特別한 것이 없고 다만 相當히 時代가 降下되는 것으로 推定되는 石造浮屠片이 殘存하고 있는데 地基石 一個와 八角石片 一個와 屋蓋石片 一個 등이 있다. ①地基石은 縱一〇cm·橫一〇五cm·厚三三cm로 된 方形盤石인 바 上面은 平게 다듬고 側面과 下底面은 大略 다듬은 加工石이다. ②八角石片(圖二·①參照)은 八角稜線部는 雙線 가운데에 三個의 珠形紋이 남아 있고 各面에는 眼象을 表示한 一部分이 남아 있는 石造破片인 바 이 浮屠의 基壇部로 推定된다. ③屋蓋石片(圖二·②參照)은 이 浮屠의 屋蓋石인 바 그 한 귀퉁이가 破失되었을 뿐 其他는 完存한다. 屋蓋表는 檐下의 反轉이 強하고 四隅降棟이 두드러지며 各面에 合閣이 造出되고 合閣마루가 뚜렷하며 四隅降棟과 合閣을 걸쳐 大小總 八葉의 蓮花紋이 浮刻되었고 頂上에는 球形의 覆鉢과 寶珠를 重置하였다. 그리고 屋蓋裏에는 中央에 八角形 造出이 있어 이 浮屠의 塔身은 八角形임을 알 수 있게 하고 이 八角形 밖으로 井字形 도리(道理) 表示가 있으며 또 그 밖으로 檐下와 浮椽을 表出하였으니 四隅로 「春舌」과 「사래」가 特設되었고 그리고 方椽을 彫刻羅列하였다. 이 屋蓋石의 特異한 點은 八角塔身에 四角屋蓋를 덮었다는 點과 屋蓋表에 合閣이 表示되고 屋蓋裏와 檐下와 浮

① 八角石片 ② 屋蓋石片
普願寺址浮屠石片(帶二圖)



椽이 表出된 木造屋蓋의 構造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들 浮屠石片은 樣式과 手法으로 보아 時代가 相當히 뒤떨어지는 朝鮮王朝時代의 것으로 推定된다. (高 八〇cm 檐下 一邊長 九〇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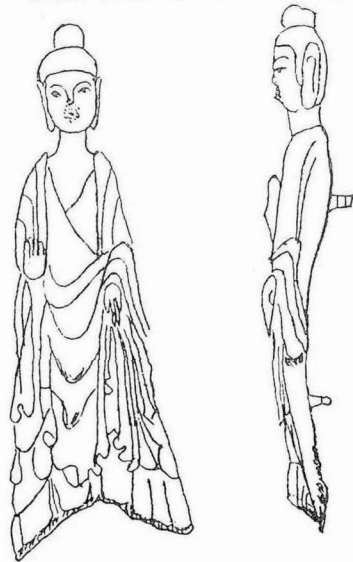
이 곳 佛像 出土地點에 朝鮮王朝時代의 浮屠가 있었고 이 一帶의 寺刹이 高麗初에 法印國師가 創建하였다는 普願寺였다. 當寺址에는 五層石塔·金堂址·法印國師寶乘塔·法印國師寶乘塔碑·幢竿支柱·石槽其他 등 遺物과 遺跡②이 現存하고 있는 바 곧 普願寺는 全盛期인 高麗時代부터 朝鮮王朝까지 계속되었다.

이들 高麗遺跡에서 百濟金銅像이 出土되었음은 普願寺의 前身이 궁금하며 或 高麗 以前 百濟時代 이 곳에 伽藍이 있어서 他例③와 같이 高麗에 이르러서 高僧에 依하여 再創한 것인 지도 모르겠는 바 이 金銅像이 百濟時代부터 이 곳에 傳來하는 遺品인지 或은 百濟磨崖三尊佛像(圖二) ③·④ 參照)所在 百濟伽藍址④와 關係되는 遺品인지는 앞으로 더 研究되고 追後 寺址發掘調査를 거치기 前에는 未詳하다.

三、金銅如來立像

金銅如來立像(圖三·寫眞參照)은 長久한 歲月을 두고 土中에 埋藏

百濟金銅如來立像 (才三圖)



되어 있으나 背面과 周緣部分에 若干의 靑鏽가 보일 뿐 全身에 鍍金이 宛然하여 金色이 燦爛하니 既往의 두꺼운 鍍金技術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直立正面如來像으로 頭頂에는 작은 圓隆의 肉髻가 우뚝 솟았고 素髮이다. 矩形에 가까운 端雅한 顔容인 바 가름한 兩頰과 둥그스름한 頸端은 溫柔한 가운데에 謹嚴한 느낌이 흐른다. 兩耳는 長橢形으로 드리워 있고 半月形의 眉梁에 杏實形의 兩眼이 半開모습을 보이며 아래로 뻗는데 磨損으로 鼻形과 口唇은 未詳하다. 그러나 口邊(口邊)와 눈가(眼際)에 古拙의 微笑가 흐르고 있다. 頸部는 圓筒形으로 三道가 없 이 아름다운 肉體美를 자아내었다. 細長身의 體軀로 곧 날씬한 몸매를 하고 兩肩이 느린 曲線을 지우며 通肩의 法衣를 着衣하였는 바 衣褶은 垂下된 衣紋이 겹쳐지고 正前에서 V/V字形으로 주름졌다. 그리고 天衣는 兩手に 걸쳐 다시 지느러미의 形狀을 이루면서 兩側으로 展開되어 곧 左右相稱의 樣相을 보이는 등 特色을 나타내고 있다. 이 法衣 밑에 속옷(下衣)을 V字形으로 胸部에서 여미었는데 가볍고 얇은 비단결 觸感을 느끼게 한다. 特別 衣紋에 注目되는 것은 下端의 處理가 八字形으로 兩側으로 斜出하였는데 兩端이 靛색하고 極度로 緊張된 모습으로



비스듬이 뻗어 있는
 樣式이다. 手印은
 右手를 들어서 外掌
 하여 五指를 세우고
 左手는 反掌하여 小
 指와 無名指를 구부
 러 붙이고 餘他 三指
 를 垂下하여 아래로
 뻗었으니 곧 如來像

에서 보는 與願施無畏의 通印을 하였다. 그리고 兩足이 缺失되고 또 座
 臺도 缺失되었다. 全身 扁平한 모습을 보이니 특히 그 扁平도가 下部로
 갈수록 增加되고 있다. 背面은 아무런 彫刻도 없이 窪이니 凹形部를 이
 루고 上下 二個의 方形突起가 있어 縱孔이 뚫려 있으니 이는 光背에 附
 着시키는 裝置다. 元來는 座臺와 光背가 俱存하던 佛像으로 推定되는데
 特別 背面部의 上下 二個의 突起部로 보아 廣幅의 光背로서 頭光・身光
 이 모두 表示된 舟形光背로 推定된다.

金銅如來立像을 實測한 바 그 實測値는 다음과 같다.

總高 九・五 cm

頭部高……一・七 cm (肉髻部는 除外)

肉髻……直徑 〇・六 cm, 高 〇・五 cm

肩部幅……二・二 cm

胸部幅……二・六 cm

衣褶幅……三・五 cm

이와 같은 實測數値에 依하면 ① 身長에 比하여 頭部가 작고, ② 肉髻
 가 작으면서 높으며 ③ 肩部幅에 比하여 衣褶幅이 넓으며 ④ 上體에 比하
 여 下體가 얇은 扁平率을 보이는 것 등은 當時 佛像의 特徵이라 하겠다.

四、造成樣式上의 特色

造成樣式的 部分的인 特色을 記述하면 그 妙趣를 보이고 있다. ① 頭
 頂에 圓隆의 小型 肉髻가 솟았고 머리(頭部)가 앞으로 숙은 모습을 하

였는데 이는 泰安磨崖三尊佛像 ⑤의 如來立像과 같은 樣式으로 中國의
 山東派佛像 ⑥에서 볼 수 있고 日本의 戊子年銘釋迦如來坐像 ⑦ 등에 相
 通되는 것이다. ② 短長形의 顔容을 하였는데 半月形의 眉梁에 杏實
 形의 兩眼이며 磨損으로 鼻形과 口唇은 未詳하지만 口邊에 古拙의 微
 笑가 떠오르는 表現은 當時佛像의 共通性이라 하겠으나 이는 雲山磨
 崖三尊佛像 ⑧에서 볼 수 있는 顔容과 微笑와는 그 表情을 달리하여 오
 히러 中國系 佛像의 作風에 가깝다. ③ 衣紋에 있어서는 옷자락 끝이
 卍字形으로 걸치고 天衣가 右肩에서 左手에 圓弧를 그리며 連하였
 고 다시 兩手に 걸쳐져 兩側으로 지르러미 形式으로 展開되는 樣式은
 中國 北魏樣式 ⑨에서 그 源流를 찾아야 하겠고 百濟諸像 ⑩과 共通되는
 點이며 그리고 日本 止利派諸像 ⑪에 影響을 주었다. ④ 또 衣紋이 腹部
 로부터 下脚部로 비스듬이 <>字形으로 주름지고 下端의 處理가 八字
 形으로 兩端이 뾰족하고 極度로 緊張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樣式은 百
 濟佛像 中이 金銅像이 지니고 있는 特異點으로 中國 正光五年銘金銅
 佛立像에서 볼 수 있는 一種의 正光樣式系 ⑫에 接近되는 것이라 하겠
 다. 그리하여 이 金銅如來立像은 頭髮의 肉髻 顔容의 表情, 衣紋의 特
 色 등으로 보아 百濟諸像 中에서 大陸樣式이 가장 濃厚한 것이라 하겠
 다.

以上 記述한 以外 當時 佛像의 一般의 樣式上의 特色을 찾아 보기로
 한다.

첫째, 佛像의 後面彫刻을 省略하고 正面에만 精巧를 다한 正面觀照性
 을 그대로 보이고, 둘째, 佛像의 衣紋에 있어서 左右相稱性의 約束을 지
 키었으며, 셋째로 泰安磨崖三尊佛像과 雲山磨崖三尊佛像에서와 같이 上
 體部가 두터울고 下體部로 얇아지는 곧 磨崖佛의인 扁平性을 固守하였
 으며, 넷째로 衣紋이 옆으로만 퍼져 있는 一平面性을 나타내는 등 他佛
 像과 더불어 共通의인 特色을 보이고 있다. 이는 中國의 北魏樣式과 우
 리나라의 三國樣式과 日本의 飛鳥樣式에서 다 같이 찾아 볼 수 있는 一
 般의 傾向이며 共通的 特色으로서의 約束이라 하겠다.

五、結 論

却說 百濟佛跡이 分布된 瑞山과 至近處인 唐津等地는 西海岸으로 突出한 地域으로 百濟當時는 西北方에 位置하여 百濟에서 中國에 海路로 通하는 要地이니 다시 말하면 이 地方을 通하여 黃海를 건너 彼我間의 文化가 交流되었을 것이다. 곧 佛教의 傳來도 이곳을 거쳐 流入되었는지 모르겠는바 그리하여 三寶信仰이 두터운 漢土人 등이 此地에 들어와 뿌리를 박고 살았으리라고도 推定되며 이들 渡來人들에게 感化를 받아 元居 百濟人間에도 佛信仰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或是 百濟朝廷의 佛敎信仰의 公許以前에 이미 民間人들 사이에 佛敎를 信仰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이와 같이 이 地方은 地域上으로 보아 佛敎의 傳入과 이에 따르는 佛敎美術의 傳來가 他地方에 先行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高古한 百濟의 磨崖三尊石佛 등이 이 地方에 存在하고 또 今般 大陸樣式이 濃厚한 百濟의 金銅如來立像이 出土되었음도 앞에서 말한 바 같은 理由가 있었기 때문이요 또한 尋常치 않은 事實이라 하겠다.

瑞山地方의 磨崖三尊石像에 있어서도 그 三尊配置方法은 規制에 맞지 않는 特例를 보이었으니 곧 泰安磨崖三尊佛像의 中央에 菩薩立像을, 兩側에 如來像을 配置한 例와 雲山磨崖三尊佛像의 中央에 如來立像을, 右脇에 菩薩立像을, 左脇에 半跏思惟像을 配置한 例等 敎理的 範疇을 벗어난 特異性은 國家的인 統制를 받지 않고 當時 民間佛敎信者들의 主觀的인 信仰佛을 自己에 맞대로 모신 것이라 하겠으니 이것도 他地方에서 볼 수 없는 類例로 他地方에 比하여 佛敎信仰이 앞선 모습이라 할 수 있겠다. 特히 今般 百濟金銅如來立像이 出土되었음은 注目되는 것으로 이 金銅像이 泰安磨崖三尊佛像과 더불어 中國 山東派(正光樣式系)의 特色을 보이어 往時的 瑞山地方은 山東地方과의 連絡이 있었고 中國本土의 造像美術을 일찌기 받아들였으며 그리고 往時는 瑞山地方이 中國의 佛敎美術을 받아들리는 要路가 되었고 또 港門이었던 것이다. 瑞山地方의 이들 泰安磨崖三尊佛像·雲山磨崖三尊佛像·普願寺址出土 金銅如來立像이 모두 西紀六〇〇年頃을 前後한 高古한 것으로 百濟佛敎의 開花期인 造像美術의 前提로 보아야 하겠고 이들 大陸樣式을 다시 같고 다

듬어서 아름다운 百濟의 造像美術을 形成하고 나아가서는 日本飛鳥期의 止利派 造形美術의 發展 根源이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美術史上에 重要な 位置를 차지하고 있는 瑞山地方이 再檢討되어야 하겠고 또한 이 諸問題가 綜合整理되어야 함을 添言하는 바이다.

註

① 拙稿「瑞山普願寺址의 調査」(考古美術 第七卷 第四號)

② ①國寶圖錄 第四輯(文教部 刊)「普願寺法印國師寶乘塔碑」·「普願寺址幢竿支柱」·「普願寺址石槽」

②國寶圖錄 第五輯(文教部 刊)「普願寺址五層石塔」·「法印國師寶乘塔」條

③ 拙稿「前掲論文」參照

③ 百濟時代의 寺刹을 前身으로 하고 後世에 寺名 또는 伽藍이 變更되어 後代에 까지의 存續例(王都에서 떨어진 地方) (百濟時代 寺刹名) (後世「新羅統一期」高麗)

① 北部修得寺……修德寺(三國遺事「惠現求靜」條)

② 鳥會寺……聖住寺(拙稿「保寧聖住寺址調査報告」亞細亞研究 第二十八號 參照)

③ 逸名寺……新元寺 (報告「新羅五岳調査——鷄龍山地區——考古美術 八卷 十一號)

④ 逸名寺……甲寺附近(黃壽永「公州石造佛像의 調査」東國史學第三六輯)

④ 黃壽永「瑞山磨崖三尊佛像에 對하여」(震檀學報 第十二號)

⑤ 黃壽永「泰安磨崖三尊佛像」(歷史學報 第十七·十八合輯)

⑥ 鈴木松原 著「東洋美術史要說」北魏時代——二四面——條參照

⑦ 久野持丸 著 日本美術史要說「止利派의 彫刻——戊子年銘釋迦如來座像——條 參照

⑧ 雲山磨崖三尊佛의 如來像의 兩頰의 隆滿과 頸端의 圓形과 더불어 溫和한 中에서도 謹嚴味가 흐르는 顔容은 익숙해진 百濟作風이라 하겠고 또 顔容에 가득 찬 微笑는 「百濟의 微笑」라고 일러오듯이 百濟人의 獨創的인 表現美라 하겠으니 今般 出土된 金銅如來像은 이에 對照가 될만큼 中國造像術에 接近되는 作品이라 하겠다.

⑨ 「……河南より山東諸地域では前述の龍門石窟諸像によつてこの北魏後半期様式が一應代表されることは勿論だが同じく石窟造像において、この正光様式を最も明瞭に具現したのは山東省黃石崖の諸像である。それらは山東における正光様式の隆盛を證する上に極めて注目すべきもので……」(鈴木・松原 東洋美術史要説「第四章北魏時代」條)

⑩ ① 關野 貞 著 「朝鮮の建築と藝術」第三章 百濟 第四節 彫刻」條
② 昭和十一年度古跡調査報告 「扶餘軍守里寺址發掘調査——發見遺物——」條 參照

⑪ 日本文化史大系 2、「彫刻——飛鳥時代——」條
鈴木・松原 著 前掲書「二〇二圖・金銅佛立像——正光五年——」參照

⑬ ① 黃壽永 「泰安磨崖三尊佛像」(歷史學報第十七・十八合輯)

② 韓國西海島嶼調査報告「新津島遺蹟」條參照

⑭ 黃壽永 前掲論文 參照

扶餘出土 半跏思惟石像

金 永 培

우리나라 佛教美術 作品中에서도 半跏思惟像의 優雅한 姿를 보는 사람마다 感嘆을 禁할 수 없는 存在라 하겠다. 이같은 造形美術 作品에 對하여 發達系譜를 考徵하기에 解放後 學者들의 關心事가 되어 온 것은 意味있는 일이라 하겠는데 今般 偶然히 扶餘에서 半跏石像의 出現을 보게 되어 斯界學究에 좋은 資料가 되겠기에 簡單히 記錄을 남겨 두기로 한다.

이 石像이 發見된 곳은 扶餘郡 石城面 縣北里(月境里)部落의 前方丘陵地帶인데 現地를 調査하여 본 것을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扶餘에서 論山行 街道를 따라 約 六km쯤 가면 扶餘邑 陵山里가 나서

는데 여기에는 南쪽으로 山길을 四km쯤 가면 扶餘郡 石城面 縣北里 小地名(月境)部落에 다다른다. 이 洞里的 南方 洞口를 가로막고 있는 丘陵이 있는데 洞民의 말에 의하면 前에는 松林이 우거졌던 곳을 約三十年前에 開墾을 하여서

田地로 되었다는 것이다. 이 말에는 所有者 張錫來氏가 春耕을 하다가 돌이 걸려서 파내었는데 거기서 이 石像이 發見된 것이다. 이 地點을 調査하여 본즉 寺址의 痕跡은 全혀 없고 돌을 파낸 곳을 보면 過去에 조그마한 建物址인 것인데 여기서 出土된 石材들을 보면 雜石이 約三、四馬車分이 나왔으며 人工을 加한 돌이 二枚가 있는데 이것은 디딤돌로 使用하였던 것 같고 조그마한 丸形礎石이 一個 섞여 있는 것으로 보아서 建物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雜石들은 建物의 基礎를 다지기 위하여 넣었던 것으로 推測되며, 이 石像도 雜石들과 함께 섞여 있었다는 것이다. 이 附近에서는 돌을 採取할 곳이 全혀 없고 거기서 東쪽으로 約一・五km쯤에 山이 있어서 돌을 주어진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데 그 山中에는 寺址가 있다는 말을 하여 주었다. 그러고 보면 山中에서 돌을 주위를 돌다 石像도 같이 섞여 온 것이 分明하다 하겠고 發見地點에는 過去에 祠堂이나 또는 神堂같은 建物이 있었던 것으로 추상되며 發見地點에서 約三百m가 당되는 곳에 平平한 陵丘가 있는데 이것을 「평맥이 山」이라고 지금도 부르고 있는 것은 무슨 行事가 있을 때에 이곳에서 樂隊들이 奏樂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發見된 半跏像은 綠色이 도는 軟質의 石材인데 腰以下의 下半部만이

